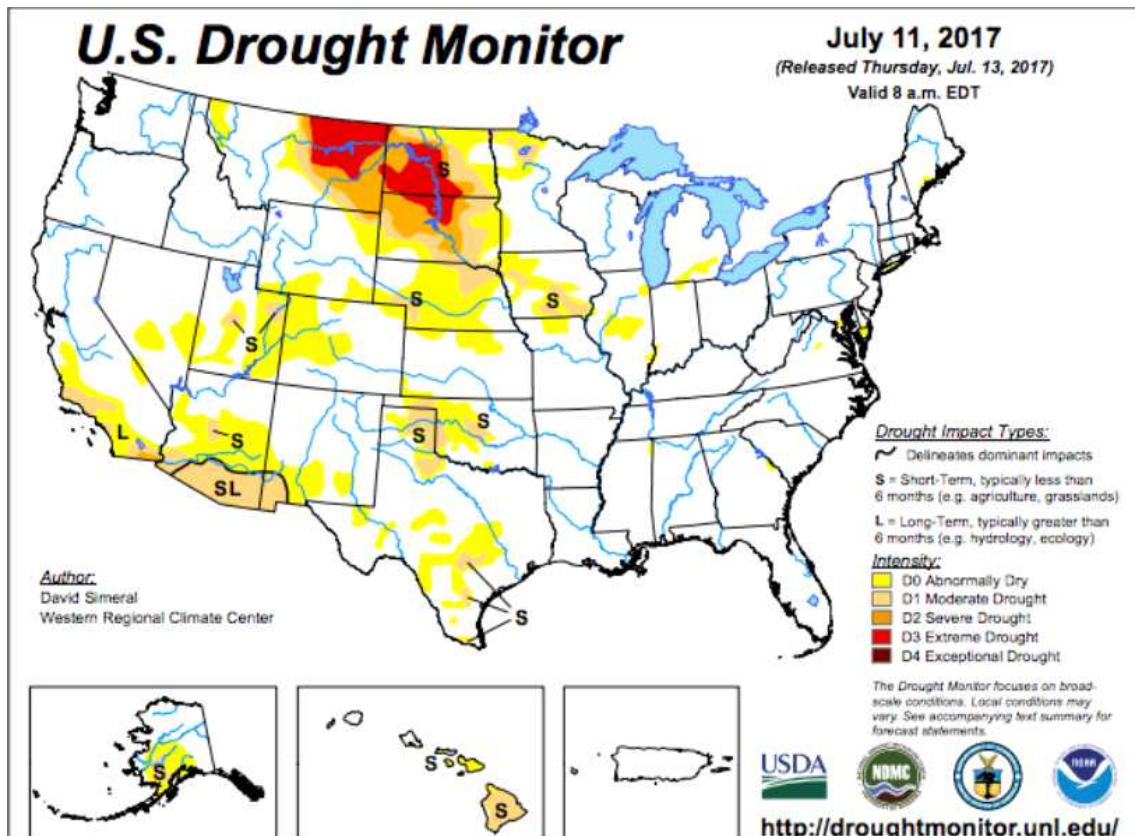


7월 1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29)

□ 미국 기후 현황(7/9~7/15)

북부 평원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조금 내리기도 했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10°F 이상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100°F까지 올랐다. 고온현상은 중부와 서부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들 지역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이상 기온이 높았다. 반면에, 미대륙 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및 남동부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남서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침수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서부에서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오대호 일대에서부터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고,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였다.



□ 농업 현황 요약(7/10~7/16)

플로리다,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위스콘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과 미시시피강 서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고, 특히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몬타나, 오레곤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이상 높은 날이 이어졌다. 반면, 남부 평원에서부터 남동부 해안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다. 플로리다, 텍사스 남동부, 루이지애나 남부 및 오하이오 등에서는 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서부 전역에서는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세계 기후 현황(7/9~7/15)

■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주 초반에는 프랑스 동부,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10~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30일간 평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가뭄도 대부분 해소되었다. 하지만, 벨기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남부 일대 및 세르비아, 루마니아 서부 등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며, 가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페인 남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 이상 오르내리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지난 7월 5일 이후부터 낮 최고기온이 35°C를 넘는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중부와 북부에서는 모처럼 비가 내렸고,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적정 수준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북부에서는 봄부터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져 왔는데, 10~70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렸고, 동부에서는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러시아에서는 곳에 따라 1~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서부에서는 지난 60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2배 가까운 곳도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밀 등의 수확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몰도바에서는 2~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벨라루스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승을 부렸던 가뭄을 해소해 주었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50~2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고, 중국 북부 평원 일대에서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양쯔강 일대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Hubei 일대의 벼 재배지역에 충분한 용수를 공급해 주었다. 하지만 이번 비는 남동부의 가뭄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중국 북동부 평원 지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Heilongjiang, Jilin, Liaoning 등의 대두, 옥수수 재배지역에 충분한 용수를 공급해 주었다. 하지만, 북부 평원 서부의 내몽고 등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전역에서는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일본에서는 Honshu 북부, Hokkaido 남부 등에서 비가 내렸다. 한반도와 일본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동부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낮 최고기온이 40°C 이상 오르기도 했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또다시 3~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지난 5월과 6월에 내린 비의 양이 평년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누적 강우량은 여전히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주 남동부에서는 5mm 미만의 매우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남호주, 빅토리아 북부,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등에서도 비가 내렸는데, 보다 많은 비가 더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퀸즐랜드 남부 등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평년에 비해 1°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북부와 동부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Santa Fe, Formosa 등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면화 수확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Buenos Aires 동부 지역에서도 1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옥수수 수확작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중부의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이상 높았고, 북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7°C 이상 높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Chaco, Formosa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까지 올랐다. 반면, 남부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3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72%를 기록했는데, 이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 15%p 앞서는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p 정도 앞서는 수준이다. Buenos Aires의 파종률은 62%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60%에 비해 2%p 앞서고 있다.

■ 브라질: 대부분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중부, 서부 및 북동부 내륙지역(Mato Grosso 동부에서부터 Bahia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옥수수, 면화 등의 수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7월 14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62%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p 앞서는 수치이다. Sao Paulo, Minas Gerais 등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남부에서도 농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Parana에서는 밀 파종률이 98%를 기록하고 있고, 이모작 옥수수의 경우 7월 10일 기준 수확률이 20%를 기록하고 있다. Rio Grande do Sul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3일 기준 밀 수확률은 87%였다. 북동부 해안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